

# BTS가 꿈꾸는 새로운 인간상

## BTS 노래 가사의 포스트 휴먼적 메시지

The New Human Image that BTS Dreams of : Posthumanistic Message from BTS Song Lyrics

진설아\*

**국문요약** 2013년 데뷔해 이제 10년차를 맞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은 현재 명실상부 글로벌한 아티스트 BTS로 자리를 잡았다. 이 연구는 BTS의 노래 가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BTS의 성장과 함께 그들의 정체성 찾기의 과정이 보편적인 인간상 찾기, 이상향 찾기의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BTS가 꿈꾸는 이상향으로서의 영웅, 소(小)영웅으로서의 〈Anpanman〉을 중심으로 포스트휴먼 시대의 영웅은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서로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관계란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BTS가 모든 존재들에게 전하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Speak Yourself”는 새로운 인간의 시대를 맞은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슬로건이 될 것이다.

**핵심어** 방탄소년단, 포스트휴머니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소영웅, 소우주

\* 가천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 차례

1. 방탄소년단에서 BTS로
2. 이상향(理想鄕)의 확대 과정
3. 아이돌에서 소(小)영웅으로
4. 관계 속에서 빛나는 소우주
5. 나오며

## 1. 방탄소년단에서 BTS로

지난 2021년 개최된 <2021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Global Citizen Live>는 빈곤 퇴치와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세계 6개 대륙의 주요 도시에서 24시간 동안 릴레이로 진행되었다. 라이브의 중간에는 각 공연자들의 위치가 점으로 찍힌 세계지도가 등장했다. 뉴욕이나 런던, 파리 등에 찍힌 무수히 많은 점들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한 곳에만 불빛이 반짝였다. 바로 BTS가 내는 빛이었다. 뉴욕, 파리, 런던, 리우데자네이루 등 세계 곳곳의 상징적 도시들에서 엘튼 존, 콜드플레이, 안드레아 보첼리 등 말 그대로 글로벌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 이 라이브 콘서트에서 대한민국의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프닝 무대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BTS는 명실상부 글로벌한 아티스트이다. 어느 평범한 한국의 3세대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팬덤을 자랑하는 BTS가 된 것이다. 하지만 BTS의 글로벌한 면모는 단지 그들의 위상이나 인기, 팬덤의 규모가 달라졌더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표상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 자체도 방탄소년단에서 BTS로 변화하는 것만 큼이나 변화해 왔다.

그렇다면 BTS는 어떻게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sup>01</sup> 이들이 분석하는 BTS의 성공 요인에는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가 갖는 특성이나, 그들의 팬덤인 A.R.M.Y의 사회 계층적 층위의 특이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BTS가 가지고 있는 서사, 이야기의 특징이다.

스토리텔링은 BTS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들을 단지 ‘아이돌’로서가 아닌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종의 트랜스미디어적 전략으로 불리고 있는 그들의 스토리텔링 작업은 다양한 미디어와 SNS, 그리고 음악적 결과물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된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BTS의 세계관을 형성해나가고 있다.<sup>02</sup> 하지만 BTS가 트랜스미디어들을 통해 드러내는 자신들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연결해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미디어에 따라 조금씩 드러내는 면모가 다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자체 예능 콘텐츠인 <달려라 방탄>에서 보여주는 개구쟁이 소년 같은 면모와 콘서트 다큐 시리즈를 통해 보여주는 진지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이 서로 무척이나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음악은 인간 BTS와 아티스트 BTS를 연결해주는 중심에 있는 매체이다. 국내 최초로 BTS 평론을 시도했던 김영대는, BTS 현상을 파헤치려는 많은 시도들은 그들의 마케팅과, 그들의 콘텐츠나 화려한 퍼포먼스에 집중

01 홍석경, 『BTS 길 위에서—BTS는 어떻게 케이팝을 넘어 세계인을 움직였을까?』, 어크로스, 2020; 윤여광,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팬덤과 성공요인 분석」,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3(3), 2019, 13~25쪽; 정주신, 「BigHit의 방탄소년단(BTS) 성공전략과 팬덤(ARMY) 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5(1), 2021, 5~50쪽.

02 이동배, 「글로벌시대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연구—케이팝 BTS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17, 2019, 69~93쪽; 민경원, 「방탄소년단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구축 전략」, 한양대 석사논문, 2018. 참조.

하지만 그들은 우선 뮤지션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BTS가 음악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를 충분히 ‘음미’해야 하는 것이다.<sup>03</sup> BTS는 데뷔 후 거의 매해 내는 앨범을 통해 노래로 자신들의 세계관을 키워왔다. 그들의 노래는 당시 BTS가 바라보는 세계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고 있다는 데에서 팬들에게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방탄소년단에서 BTS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 역시 그들의 음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BTS의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성장서사이며 BTS가 꿈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BTS의 음악은 또한 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를 곡들의 작업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사를 만드는 일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각각의 앨범에 대해 소개를 하는 영상들에서도 끊임없이 가사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을 하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음악은 멤버들이 직접 가사를 쓰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준다고 이야기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BTS의 음악에는 그들이 꿈꾸는 인간상, 이상향理想郷이 담겨 있다. 단지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예술적 철학을 담아내는 매개체로서 노랫말을 써가고 있는 것이다.<sup>04</sup> 이 연구에서는 BTS의 철학이 담겨 있는 매개체로서의 그들의 노래 가사가 그들이 꿈꾸고 있는 인간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상이 포스트휴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03 김영대, 『BTS—The Review』, 알에이치코리아, 2019, 6~8쪽.

04 김민석·전윤환, 「방탄소년단(BTS) 작품 비(BE) 앨범에 나타난 예술철학사상 연구」, 『문화와 융합』 43(12), 2021, 829~854쪽.

## 2. 이상향<sup>理想郷</sup>의 확대 과정

2022년을 기준으로 BTS는 데뷔 후 9년 동안 싱글과 정규 미니 등을 포함 총 24개의 앨범을 발표하며 쉽 없이 작품활동을 해 왔다. 그들의 음악은 수많은 이야기와 세계관을 담고 있으나 무엇보다 BTS 음악의 중심에는 BTS의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BTS가 음악을 통해 보여주는 성장의 과정은 그들이 목표로 하는 이상적 인간상의 변화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데뷔 싱글인 《No More Dream》<sup>2013</sup>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공한 아이돌의 삶을 목표로 하는 변방의 아이돌이었다가, 《화양연화》<sup>2015-2016</sup>와 《Wings》<sup>2016</sup>로부터 아이돌로서의 자신과 실제의 자신 사이의 괴리에 대해, 부딪히고 모순되는 자신의 내면에 대해 깊은 고민을 시작하고, 비로소 《Lone Yourself》<sup>2017-2018</sup>에서 《Map Of the Soul》<sup>2019-2020</sup>에 이르며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려나간다.

자신에게 물어봐 니 꿈의 profile

억압만 받던 인생 니 삶의

주어가 되어 봐

니가 꿈꿔 온 니 모습이 뭐여

〈No More Dream〉, 2013

2013년 방탄소년단의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인 〈No More Dream〉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노래한다. 이 노래의 중심에는 당시 십대의 청소년이자 동시에 아이돌로서의 삶을 선택한 자신들의 꿈과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청소년

년들에게 기대하는 보통의 꿈 사이의 갈등이 있다. 이처럼 BTS의 초기 곡들에는 아이돌이라는 특수한 직업이자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음을, 나아가 그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 치열한 K-pop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은 “진격의 방탄!”을 외치며 자신들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화양연화》 시리즈로부터 BTS의 고민은 점차 아이돌로서의 자신과 인간 개인으로서의 자아 사이에서의 괴리에 놓여 있는 듯하다. 아이돌로서의 성공은 한 편으로는 빛나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어두워져 가네 미래의 빛  
치기 어린 사랑에 잃은 꿈의 길  
내 야망의 독기 매일 칼을 갈았지  
but 참을 수 없는 내 욕심에 같은 무더져  
알고 있어 나  
이 사랑은 악마의 또 다른 이름  
손을 잡지 마

〈Intro : Boy Meets Evil〉, 2016

2017년 발표한 정규 앨범 〈You Never Walk Alone〉에는 그동안 개인곡을 발표하지 않았던 멤버들 각각의 솔로곡이 실려 있다. 정국 〈Begin〉, 지민 〈Lie〉, V 〈Stigma〉, 진 〈Awake〉는 가사에 개인적인 이야기나 생각들을 담아내

왔던 랩 라인과는 달리 보컬 라인들의 생각과 고민들이 담겨 있는 곡들이다. 그리고 이 곡들에서 그들은 아이돌로서의 삶과 개인의 삶이 충돌하는 과정에서의 고민들을 노래한다.

순결했던 날 찾아줘  
이 거짓 속에 헤어날 수 없어  
내 웃음을 돌려놔줘  
(...중략...)  
별받는 나를 구해줘  
나를 원해  
길을 잃고 헤매이는  
나를 원해

〈Lie〉, 2017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보살피지 못한 과거 나와와 화해와 거짓된 내가 아닌 진실의, 순결한 나를 되찾고 싶다는 노랫말 속에는 이들이 한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민, 멤버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자아와 아이돌로서의 자아 사이에서의 갈등과 방향은 이후 오랫동안 그들의 음악에서 중심적인 메시지가 된다. 그리고 비로소 이들은 그러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운 것처럼 보인다.

You can call me artist

www.kci.go.kr

You can call me idol  
아님 어떤 다른 뭐라 해도  
I don't care I'm proud of it  
난 자유롭네 No more irony  
나는 항상 나왔기에 손가락질 해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네  
(...중략...)  
내 속안엔  
몇십 몇백 명의 내가 있어  
오늘 또 다른 날 맞이해  
어차피 전부 다 나이기에

〈Idol〉, 2018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란 놈을 고작 말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다 만드시진 않았겠지

〈Intro : Persona〉, 2019

BTS의 노래들은 점차 '나'는 누구인가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향해 가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 단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님을 받아들이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인간이 그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한다. 《Love Yourself》는 그들의 이러한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앨범이다. 이 앨범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혀 왔던 개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원대한 이상향, “어떻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간들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BTS가 던진 이 메시지는 현대사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잠시 RM이 유니세프의 ‘Generation unlimited’ Partnership event에서 했던 연설문 “Speak Yourself”의 한 부분을 확인해 보자.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인종과 젠더의 장벽을 넘는 일은 현대사회의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동안 인류가 그 장벽을 넘기 위하여 선택한 메시지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에 가깝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협약’으로서의 인간 개념은, 아주 통제적이어서 오히려 ‘배제하고 차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sup>05</sup> 즉, A에게 B를 차별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은 A와 B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을 오히려 더 단단히 고정할 뿐이며, 나아가 B를 타자화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BTS의 노래는 인류 전체에 대하여 그 누구도 대상화하거나,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선을 긋는 형태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05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39~40쪽.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호소한다.

이제야 깨달아 so I love me  
좀 부족해도 너무 아름다운 걸  
I'm the one I should love  
흔들리고 두려워도 앞으로 걸어가  
폭풍 속에 숨겨뒀던 진짜 너와 만나  
왜 난 이렇게 소중한 날 숨겨두고 싶었는지  
뭐가 그리 두려워  
진짜 내 모습을 숨겼는지

〈Epiphany〉, 2018

신의 현현을 뜻하는 “Epiphany”는 BTS의 노래 속에서 신보다 귀한 존재인 자신을 찾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BTS의 노래 속에서 인간은 점차 새로운 위치를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미래의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관의 재정립으로서 포스트휴먼적 사유로 향하게 된다.

물론 BTS가 제시하는 인간상은 인간 / 비인간 개념의 확장에 해당하는 바에서의 포스트휴먼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 향상이나 기술철학적 관점에서의 포스트휴머니즘이 아닌 포스트휴머니즘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가깝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포스트휴머니즘 이론들이 해야 할 역할이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정립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존의 인간관에 대한 반성과 재정립에도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비

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무엇보다 기존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휴머니즘 안에 비판적이며 해체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sup>06</sup>이다. BTS의 노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관점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기존의 인간관이 가지고 있는 차별과 배제를 넘어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그들의 노래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 중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중심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sup>07</sup>

### 3. 아이들에서 소년영웅으로

그렇다면 BTS의 노래 속에서 형상을 찾아가고 있는 새로운 인간상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첫 번째 단서를 <Anpanman><sup>2018</sup>에서 찾을 수 있다.

내겐 없지 알통이나 갑빠

내겐 없지 super car like Batman

되게 멋진 영웅이 내 낭만

06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김연순 외역, 『포스트휴머니즘』, 성균관대 출판부, 2012, 19쪽.

07 위의 책, 13쪽.

But 줄 수 있는 건 오직 Anpan

꿈꿔왔네 hero like Superman

대중문화 콘텐츠에는 영웅을 주제로 하는 것이 많다. 아니 현대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영웅서사는 인류와 그 기원을 함께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인류의 원형적인 서사이다. 그리고 영웅서사는 '사적 욕망의 집적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지각하게 하는, 더 나아가 시민주체의 변혁적 열망을 표상하는 사회문화적 바로미터'<sup>08</sup>의 역할을 한다. 즉, 영웅서사의 원형적 특성이 같다고 할지라도 특정 시대의 영웅서사는 해당 사회가 원하는 형태의 인간상으로서의 영웅의 모습을 재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BTS가 그려낸 '앙팡맨'은 어떠한 영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날아라 호빵맨>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일본 애니메이션 <안팡맨><sup>1988, 일본 Ntv</sup> 속 '앙팡맨'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인 만큼 강하고 우람하다기보다는 귀엽고 하찮은 기술을 자랑하는 작은 영웅이다. 이는 BTS의 노래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anpan'이며, 다른 슈퍼히어로들이 가진 우람한 체격이나 멋진 장비들도 하나 없는, 줄기차게 '상처 만땅'인 어찌면 나약하게도 보이는, 영웅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보인다.

사실 영웅, 즉 향상된 인간에 대한 욕망은 인간 문명이 이루어낸 급격한 변화와 인간의 본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이 낳은 현대 문명의 중차대한 위기<sup>09</sup>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강

08 박형준, 「영웅서사의 해체와 사건의 존재론」, 『오늘의 문예비평』, 2017, 53~66쪽.

09 문성원, 「약함을 향한 윤리-인간 향상과 타자에 대한 책임」, 『시대와 철학』 29(3), 2018, 91~123쪽.

함만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현대사회가 원하는 영웅의 역할을 다 해낼 수가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웅의 표상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특히 대중문화 속 영웅의 서사에서는 그 변화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대중문화 속 영웅은 절대적인 선과 악을 구분하고 수호하는 이로써가 아니라 다양하고 소외된 계층들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sup>10</sup> 이는 말하자면 대중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요청이, 강한 존재인 영웅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나약한 영웅에게서의 연대를 더욱 바라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앙팡맨’에게서 얻게 되는 연대는 그가 가진 ‘취약성’에서 나온다.

솔직하게 무서워 넘어지는 게  
너희들을 실망시키는 게  
그래도 내 온 힘을 다해서라도  
나 꼭 너의 곁에 있을게  
다시 넘어지겠지만  
또다시 실수하겠지만  
또 진흙투성이겠지만  
나를 믿어 나는 hero니까

사실 취약성(vulnerability)이란 ‘인간의 조건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이며 항상적인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명은 취약성에 의해 표시되고

10 전영돈, 「시대별 영웅서사의 스토리텔링 변화 연구」, 『디지털영상학술지』 18(1), 2021, 81~114쪽.

형성'된다.<sup>11</sup> 하지만 인간은 은연중에 강함을 동일자적 속성으로 두고 약함은 타자의 것으로 미뤄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실 10kg짜리 덤벨 하나 드는 것도 힘든 우리가 지구를 움직이고 시간을 돌리는 매체 속 영웅의 모습에 열광하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강함에 대한 동일시는 결국 약한 타자인 우리 스스로에 대한 소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공감과 연대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주요한 슬로건이 된 현재에, 결국 올바른 공감과 연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강함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것으로 미뤄둔 약함으로부터 생각을 펼쳐 나가는 일이다.<sup>12</sup>

이렇게 새 시대의 영웅 '앙팡맨'은 자신의 정체성을 '취약성'으로부터 부여받음으로써, 차별과 특권을 넘는 새로운 인간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간다. 이 '취약한 대상vulnerable subject'은 자유주의 전통에서 주장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 즉 기존의 '인간'에게서 요구되던 주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간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13</sup> <Anpanman>이 실린 "Love Yourself" 시리즈의 최종적 결과물인 《Love Yourself : 結》에는 이처럼 취약한 존재, 상처입은 존재들이 가득하다.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

11 Martha Albertson Fineman, "The Vulnerable Subject : Anchoring Equality in the Human Condition",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20(1), 2008, pp.1 - 10.

12 문성원, 앞의 글, 113~114쪽.

13 Martha Albertson Fineman, 앞의 글, pp.1~2.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길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길  
이뤄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Fake Love〉, 2018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취약한 존재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다시 〈양팡맨〉으로 연결된다. ‘양팡맨’을 일종의 소시민적 영웅이라고 해석할 때, 소시민적 영웅 캐릭터의 특징 중 가장 주목할 지점은 개인의 의지를 통해 영웅으로서의 소명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즉,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우연적인 초능력의 획득을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 보편적인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됨으로써 특정한 존재만이 아닌, 보편적인 인류 모두가 영웅적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sup>14</sup>

결국 《Love Yourself : 結》의 취약한 존재들은 자신의 약함과 상처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한다. 그들은 이제 자신이 ‘아이돌Idol’이라 불리든 다른 무엇이라 하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유롭다’고 흥겹게 노래한다. 하나의 완결된 주체로서가 아니라 그 속에 ‘몇십몇백 명’으로 존재하는 나의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이지만 ‘가면을 쓰고’라도 널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DOL》, 〈전하지 못한 진심〉). 그렇다면 이들이 만나러 가겠다는 ‘너’, 언제라도 어디라도 구하러 가겠다는 ‘너’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14 김상남, 「영화 「베테랑」에서 나타나는 소시민적 영웅 캐릭터 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0, 2016, 81~97쪽.

## 4. 관계 속에서 빛나는 소우주

반짝이는 별빛들  
깜박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하나

〈소우주〉, 2019

“대우주와 소우주(Macrocosm and microcosm)”는 고대 그리스부터 르네상스 철학에 이르러 나타난 개념으로, 개개의 사물이 우주를 반영한다는 사상이다. 즉, 인간 역시 그 자체로 우주이며, 우주의 소우주인 인간은 대우주를 통해서만, 또한 대우주는 소우주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고 이해되어 왔다.<sup>15</sup> 인간을 신의 반영이라고 보는 이 사상은 때로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 일조해 오기도 했다. 소우주로서 인간은 신과 같은 위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BTS가 노래하는 ‘소우주’는 인간에게 그들만의 고유성을 찾아주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나,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주관자라는 주장과

15 「대우주와 소우주」,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는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을 만물의 중심이라 여기는 인간중심적 사유에서 벗어나 우주적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사유하는 ‘우주적 휴머니즘’으로써 인간과 인간 외의 모든 존재들과 소통하는 ‘관계 중심적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휴머니즘이다.<sup>16</sup> BTS는 온 우주에 있는 존재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아가 그들의 시선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려 한다.

오래전부터 BTS는 우주와 바닷속 깊은 곳과 같은 인간이 닿지 못하는 곳에 있는 존재들에 관심을 가져 왔다. 〈134340〉<sup>2018</sup>은 태양계 행성군에서 쫓겨나 그 이름을 잃은 명왕성의 슬픔을 노래한다. 〈Whalien52〉<sup>2015</sup>는 홀로 독특한 주파수로 노래하는 먼 바다의 고래를 고래들의 외계인이라 부르며 그의 외로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은 우주를 노래한 곡 중 진의 솔로곡인 〈Moon〉<sup>2020</sup>이다.

너는 나의 지구  
 네게 난 just a moon  
 네 맘을 밝혀주는 너의 작은 별  
 (...중략...)  
 모두들 내가 아름답다 하지만  
 내 바다는 온통 까만 길  
 꽃들이 피고 하늘이 새파란 별  
 정말 아름다운 건 너야

16 이주현, 「질 쉬페르비엘의 작품 속에 나타난 우주적 휴머니즘」,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5, 2011, 347~379쪽.

노래 속 달은 지구의 위성이라는 그 위치처럼 오직 지구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한다. 달에게 지구는 ‘이름조차 없었’던 그에게 이름을 주고 사랑을 주고, 존재의 이유가 된다. 지구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달의 시선에서 파랗고 아름다운 지구를 사랑하는 달의 마음을 담은 이 노래 속에서 달은 하나의 주체라기보다는 대상에 가깝다. 하지만 달은 스스로 그러한 대상의 위치에 있기를 선택한다. ‘네 주위를 맴돌’면서 작은 빛이지만 ‘킴킴한 밤에’ 지구의 곁을 지키겠다고 노래한다.

이처럼 BTS 노래 속 모든 존재들은 다 소우주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은 그 자체로 크든 작든 우주를 품고 있는 고유한 존재들로서 이름을 부여받는다. 서로가 있기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이름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함께 있어서 서로를 비추며 비로소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마치 모나드처럼 말이다.

더 정확히 말해, 세계가 있어 모나드들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모나드들의 총체가 바로 세계<sup>정확히말해물질에구현되기이전의세계인 것이죠.</sup><sup>17</sup>

라이프니츠에 의해 시작된 인식론의 한 기준인 모나드론은 현대의 기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할 만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모든 존재들을 고유한 하나의 모나드로 바라보고 그들의 관계를 통해 세계가 형성된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 인간이 가져야 할 비인간이나 우주적 존재들에 대한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나드적 존재가 되면서 모든 작은 것들은 각자의 고유성을 갖게 되며, 오직 서로의 관계 안에서만 세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

17 이정우, 『집힘과 펼쳐짐—라이프니츠와 현대』, 그린비, 2012, 344쪽.

든 소우주들은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모나드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전의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 준다.

모나드의 '제한된 관점'은 외부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 데카르트나 물 자 체실재계는 알 수 없다고 말한 칸트와 구분되는 제3의 위치를 시사한다. 모나드론 에서 세계는 완전한 인식이 가능한 객체로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도 아니며, 모 나드들의 접근과 펼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곳이다. 이 점은 인식론적 미 결정성을 말하는 탈근대론과 연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sup>18</sup>

데카르트적 시각은 세계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내부를 가진 이가 외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카메라로 외부세계를 찍을 때 그 외부세계는 카메라를 든 이의 내부에 비친 외부세계가 되는 것으로, 결국 누군 가의 결정된 주관으로 외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나드론 안에 서는 완결되어 존재하는 내부나 외부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신의 내부나 타인의 외부(이러한 구분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를 인식할 수 있는 것 은 오직 각각의 모나드들이 마주쳐서 자신의 주름을 펼치게 되는 순간뿐이다.

BTS의 〈My Universe〉<sup>2021</sup>은 모나드들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주름이 펼쳐 지는 이러한 순간을 노래한다.

They couldn't capture  
that bright infinity

18 나병철, 『영화와 소설의 시점과 이미지』, 소명출판, 2009, 134쪽.

inside your eyes

(...중략...)

You,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

And you, you are my universe, and

You make my world light up inside

〈My Universe〉 속 우주는 나이면서, 동시에 나의 ‘첫 번째’이지만 서로 어둠 속에 있어 만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하지만 만나는 순간 이들은 서로의 ‘불빛’을 밝혀주는 존재가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 불빛은 밖에서 나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비로소 켜져 나를 밝혀준다는 것이며, 나아가 무한히 잡아놓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이 서로의 안에 있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서로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일로 그려진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우주 속에서 오직 만남의 순간에 반짝 불을 밝히게 되는 존재들로 서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모나드론은 각 존재의 고유성을 인정하지만 그 고유성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빛을 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에, BTS가 그려낸 소우주들 역시 오직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만 자신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만남의 순간을 갖게 되는 것일까? 이들은 어떻게 그 관계를 맺게 되는가? 〈My Universe〉나 〈Moon〉에서 모두 그들은 서로와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들은 단지 정해진 궤도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거나 오직 꿈속에서만 그들의 만남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의 불을 켜는 일은 만남의 방식과는 아무런 관계

가 없다. 오직 그 존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들이 각각의 소유주로 자신 안에 밝은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관계는 충분하다.

이들은 마치 네트워크로서, 네트워크에서 존재하는 행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물리적인 육체 밖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과 그 관계가 비로소 그들을 행위자로 만들어주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부여했던 관습적인 특성들을 부정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관계란 인간이 만들어놓은 경계들을 뛰어넘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9</sup> ANT에서 관계주의란 ‘우리가 세우려고 노력하는 상대적 보편성들에 관한 전지구적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이다.<sup>20</sup> 즉, 관계주의 안에서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근대의 인식론을 버리고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 그 자체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동시에 BTS가 자신들의 팬과 우주적 존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My Universe〉는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이 여전히 인류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2021년에 발표되었다. 이 노래를 부른 BTS와 영국 밴드 Cold Play가 찍은 뮤직비디오에는 서로 다른 우주에 사는 존재들이 서로 홀로그램으로 만나 음악을 나누고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외부적 조건으로 물리적 만남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으나, 이는 단지 Covid-19의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사회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의 형태를 제시한 것이기도 했다.

다시 〈소우주〉로 넘어가보자.

19 브루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역, 『인간·사물·동맹—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2010, 46쪽.

20 브루노 라투르, 홍철기 역,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201쪽.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칠후 같던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중략...)

도시의 불, 이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하늘을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이 곳에서

We shinin'

〈소우주〉의 메시지는 다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되 돌아온다. 하지만 이 때의 인간은 만물의 중심에 있는 이로써가 아니라 우주적 존재로서, 우주의 수많은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다. 그곳에서 서로를 알아봐주고 불러줄 때까지 빛나고 있겠다는 이들의 노래는 우주적 존재인 인간에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만남을 기다리게 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사유로 남을 것이다.

## 5. 나오며

2013년 데뷔해 이제 10년차를 맞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은 현재 명실상부 글로벌한 아티스트 BTS로 자리를 잡았다. BTS의 성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티스트로서의 성장과 함께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역시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BTS의 음악은 그들의 삶과 궤를 함께 하며 삶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BTS의 노래 가사가 이들의 정체성 찾기와 과정을 같이 하며, 나아가 이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으로서의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새로운 인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인류에게 전하는 중요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3장에서는 BTS가 꿈꾸는 이상향으로서의 영웅, 소소영웅으로서의 〈Anpanman〉을 중심으로 포스트휴먼 시대의 영웅은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다양성의 시대에 보편적인 인류의 공감을 얻는 영웅의 모습은 ‘양팡맨’처럼 상처입기 쉬운, 취약한 존재로 나타난다. BTS는 자신들의 노래 안에서 노래의 화자들이 가진 취약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인류의 보편적 특성으로서의 취약성을 받아들인다. 이는 곧 ‘우리’가 가진 강함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약함을 통해 인간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취약한 존재이기는 하나 이 작은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은 이들이 서로의 영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자격을 부여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영웅 되기를 자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처입고 약해지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언제든지 함께 할 것임을 소리높여 노래한다.

이에 4장에서는 이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서로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관계란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소우주>는 각각의 인간 모두를 ‘소우주’라고 명명하고, 이 소우주들이 만나는 순간을 이름답고 쓸쓸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를 인간 각각을 모나드로 명명하고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모나드<sup>44</sup>로서의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서로의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탈근대적 시선으로 읽어내고자 했다.

그리고 모나드론은 무엇보다 모나드들이 서로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간직해 왔던 고유한 불빛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또한 현대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의 관계주의와 연결된다. BTS는 우주를 노래하면서 우주의 존재들이 오직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붉을 밝힐 수 있다고 노래한다. 그리고 또한 이 관계는 인간이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지정해 둔 인간 중심적인 형태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놓는다.

이처럼 BTS는 그저 화려한 퍼포먼스와 미디어의 활용만을 통해 글로벌한 아티스트가 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들은 끊임없이 대중에게, 팬들에게, 나아가 우주적 존재에게 그들이 자신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다.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차별과 배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Speak Yourself”는 새로운 인간의 시대를 맞은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슬로건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BTS 앨범

### 2. 단행본 및 논문

- 김민석·진윤한, 「방탄소년단(BTS) 작품 비(BE) 앨범에 나타난 예술철학사상 연구」, 『문화와 융합』 43(12), 2021.
- 김상남, 「영화 “베테랑”에서 나타나는 소시민적 영웅 캐릭터 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0, 2016.
- 김영대, 『BTS—The Review』, 알에이치코리아, 2019.
- 나병철, 『영화와 소설의 시점과 이미지』, 소명출판, 2009.
- 로지 브라이도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 문성원, 「약함을 향한 윤리—인간 향상과 타자에 대한 책임」, 『시대와 철학』 29(3), 2018.
- 민경원, 「방탄소년단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구축 전략」, 한양대 석사논문, 2018.
- 박형준, 「영웅서사의 해체와 사건의 존재론」, 『오늘의 문예비평』, 2017.
- 브루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역, 『인간·사물·동맹—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2010.
- 브루노 라투르, 홍철기 역,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김연순 외역, 『포스트휴머니즘』, 성균관대 출판부, 2012.
- 윤여광,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팬덤과 성공요인 분석」,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3(3), 2019.
- 이동배, 「글로벌시대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연구—케이팝 BTS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17, 2019.
-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라이프니츠와 현대』, 그린비, 2012.
- 이주현, 「쥘 슈페르비엘의 작품 속에 나타난 우주적 휴머니즘」,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5, 2011.
-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 전영돈, 「시대별 영웅서사의 스토리텔링 변화 연구」, 『디지털영상학술지』, 18(1), 2021.
- 정주신, 「BigHit의 방탄소년단(BTS) 성공전략과 팬덤(ARMY) 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5(1), 2021.
- 홍석경, 『BTS 길 위에서—BTS는 어떻게 케이팝을 넘어 세계인을 움직였을까?』, 에크로스, 2020.
- Martha Albertson Fineman, “The Vulnerable Subject : Anchoring Equality in the Human Condition”,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20(1), 2008.

## Abstract

# The New Human Image that BTS Dreams of

Posthumanistic Message from BTS Song Lyrics

Chin Sol-a\*

Korean idol group BTS, which debuted in 2013 and is now in its 10th year, has established itself as a global artist B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ew human image suggested by BTS' song lyrics.

In Chapter 2 it is confirmed that with the growth of BTS, the process of finding their identity is expanding to the process of finding a universal human image and idealism. This process is also to present an important critical perspective to convey to mankind, who is facing a new human era.

In Chapter 3, focusing on 'Anpanman' as a micro-hero, which is BTS's idealized hero, I examined what a hero in the posthuman era looks like. The heroes BTS draws are vulnerable and small beings. This is not the strength of "we" but also an effort to look at humans anew through the weakness of "you". These heroes are also meaningful in that they are heroes that all mankind can be, and above all, they voluntarily stand in the position of heroes.

In Chapter 4, we tried to find out 'what' they wanted to save each other and 'what relationship meant' to them. Through the concept of 'microcosm', BTS shows a monadic perspective that accepts human uniqueness as it is. Monad has a position of 'relationalism'. It can also suggest a new view of human beings through relationships in connection with ANT.

In this way, the message that BTS conveys to all beings, "Speak Yourself," will be an important slogan that humanity must remember in the new human era.

**Keywords** BTS, post-humanism, critical post-humanism, micro-hero, microcosm

이 논문은 2023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6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Gachon University.